

전북관광, 토탈관광의 초석 다진다

전북방문의 해 선포 · 전북투어패스 발매 ·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로 시너지 효과 기대

전북도가 도내 14개 시군을 한데 묶은 '전북투어패스' 발매와 전북 방문의 해 선포식을 계기로 차별화된 전북관광산업의 지속적 발전성 확보와 외연 확장을 가시화하고 나섰다.

특히 오는 5월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대회와 6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등 국제대회를 비롯 바다의 날 행사 등 대규모 국내행사도 예정돼 있어 이를 연계, 활용해 '한국제1번지 전라북도'에 대한 관광마케팅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 3,500만명을 유치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올해 전북방문의 해를 통해 도내 관광산업의 기반을 탄탄히 다지는 계기로 삼아 14개 시군이 성

과를 공유하고 동반 성장하는 진정한 토탈관광의 실현에 지향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전북 스포츠 관광 활성화, 중화권 등 국내외 관광객 유치, 맞춤형 수학여행 프로그램 유치 고도화 등 3대 추진전략을 세우고 5대 분야, 30개 실행과제 추진에 본격 나서게 된 것이다.

전북도는 전북방문의 해가 실효성을 거두도록 출항인 고향방문의 날 등 이벤트 행사 4개사업, 세계문화유산인 백제역사유적지구와 2023세계잼버리 유치 여건 조성을 알려주는 관광지로 급부상시키기 위한 특별프로그램 12개, 스포츠 관광산업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국제대회

4개, 도내 전반의 관광객 수용 인프라인 안내표지판, 숙박시설, 음식점 등을 정비해 관광재민족도를 높이기 위한 역랑강화사업 6개, 홍보마케팅 4개사업을 연중 진행한다.

전북도는 이처럼 올해 전북방문의 해 사업을 통해 도내 관광산업의 발돋움 기위 나가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빈약했던 겨울철 관광상품 개발 등 특화상품으로 구성해 상품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속속 마련 중이다.

도가 계절별, 타깃별, 테마별로 마케팅을 세분화 하는 등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 발굴한 각종 관광정책을 꾸준히 보태 '누구나 365일 가고 싶은 관광도시, 전북'으로 만들어 나갈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을 한해가 토탈관광의 초석을 다지는 해로 자리매김 할 전망이다.

송하진 지사는 "전국 최초로 전북 14개 시군을 단일 관광권으로 묶어낸 전북투어패스는 전북관광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전북의 풍부한 관광자원과 차근차근 준비해온 대형국제행사를 전북투어패스 및 1시군 1대표관광지 등의 토탈관광시스템과 연계해 효과를 배가할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전북방문의 해를 계기로 지역 관광시장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올 한해를 전북관광의 초석을 다지는 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도, 1~2월 중앙공모사업 19개 선정

국비 201억원 확보

전북도는 1-2월 중앙공모사업에서 모두 19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201억원을 확보했다.

사업은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시군 연계협력)사업(9개 시군, 99억원), 들녘경영체육성 사업(군산·익산·정읍·김제·고창·부안, 21억원), 대학창조일자리센터(군산대, 15억원) 등이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을 통해 전북도내 지역상생 발전에 큰 힘을 보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에서 선정된 35개의 사업 중 전

북도에서만 서남부생활권(정읍·고창·부안) 2건, 동남부생활권(임실·남원·순창) 1건, 동북부 생활권(장수·진안·무주) 1건 등 총 4개 사업에 전국 최다 선정됐다.

도 관계자는 "3월에는 15건, 344억원 규모의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설명회, 대면심사, 현장평가 등에 철저히 대비해 공모 선정에 응할 예정"이라며, "공모사업 선정률 제고를 위해 정치권 협조 요청 등 전방위적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별 선정 전망분석과 단계별 평가를 차질없이 준비해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 31일까지 접수

전북도는 친환경직불금 사업 신청을 3월 2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접수한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기간 내에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서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사업신청 후 인증기관의 인증기준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 받은 경우에 한해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이 사망, 농지의 매도·임대차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대상자를 변경할 경우나 사업기간 중 인증기관을 달리하여 인증서를 취득할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주시도 친환경농업 농업인들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를 일부 보전해주는 '2017년도 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등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인재용 기자·김영재 기자

올해 전북도 살림살이 규모 5조8236억원

'2017년도 예산기준 재정공시' 통합재정수지 1852억원 흑자

전북도는 '2017년 전라북도 예산기준 재정공시'를 통해 전북도의 살림살이를 공개했다.

도 홈페이지(www.jonbuk.go.kr) 전북재정을 통해 공개된 전북도 예산 총규모는 2016년도보다 1,874억원이 증가한 5조8,236억원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1조336억원, 국고보조금·교부세 등 의존수입이 3조7,998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9,902억원이다.

공개된 예산편성 기준 재정공시 내용을 살펴보면, 전북도의 재정은 2016년에 비해 재정규모 및 재정지립도, 재정자립도가 증가하고 통합재정수지가 흑자를 나타내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뤄졌다.

또한 유사 지자체인 9개 광역도와 비교해 재정규모와 자체수입이 평균보다 적고 재정지립도 및 재정자립도가 낮아 열악한 재정상황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북도 예산규모는 2013년 4조9,483억원에서 올해 5조8,236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재정지립도(23.08%) 및 재정자립도(39.18%) 역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내며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전년(40억원)대비



원활한 창업지원 위한 협약식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는 지난 28일 창업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10개팀의 시상식과 함께 원활한 창업지원을 위해 대·중소기업 협력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박명식 사장과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김형호 사무총장, 창업지원 대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이다. <권력기사 6면>

1,812억원이 증가한 1,852억원의 흑자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기준액 대비 5%~10% 삭감 편성에 건전성을 높였다.

이와 같은 재정지표를 통해 전북도

는 산업기반 취약 등에 따른 열악한 재정상황 속에서도 자체세입 확충, 자부재원 확보 노력과 함께 보조금 심사 강화 등 세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에 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전북도는 지방재정공시제도를

통해 재정운용 결과를 1년에 2차례(2월:예산, 8월:결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지방재정공시 관련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jonbuk.go.kr, 전북재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재용 기자

도, 사이버테러 대비 보안체계 강화

전북도는 올해도 여러 유형의 사이버 침해시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도와 시군의 900여대 정보시스템과 약 2만여대의 업무용 PC에 대한 사이버 보안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적으로 사이버 침입시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월 16일자로 2명의 관계요원을 5명으로 증원해 종전 주중·주간에만 모니터링하던 것을 24시간 보안관계 체계

를 구축했다.

또한 이달으로 5.6억원의 사업비로 통합도그관리시스템과 개인정보보호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와 시군 정보시스템과 업무용 PC에 대해 사이버침해 모의 대응훈련과 보안 취약점 진단·조치,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매뉴얼 개정, 개인정보관리계획에 따른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인재용 기자

도내 시군 대표축제 담당자 워크숍 2일~3일 개최

전북도는 도시군 공무원 및 관계자, 전주대학교 등 50여명이 참석하는 '2017년 시군 대표축제 담당자 워크숍'을 지난 홍산사에서 2일부터 3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문화체육관광부 '2017년 문화관광축제 현장평가' 계획 강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도는 도 및 시군 축제담당자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시군대표축제 평

가계획 및 축제 성공사례 등을 함께 공유하고, 지난해 시군대표축제 평가에서 도출된 개선사항 등 2016년 도 평가결과를 민간위탁기관 PM을 통해 피드백 시간을 갖고, 축제장 방문객 집계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시군대표축제의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전문가초청 강의와 시군 축제별 콘텐츠, 축제의 운영 등 분야별 축제 전문가 코칭 및 토론 시간도 마련했다. /인재용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